

시츄견에서 거대 안검열 증후군(macropalpebral fissure syndrome)의 수술적 치료 예

김준영, 김경희, 이준섭, 장하영, 이보라, 최영민¹, 정순욱*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외과학교실, ¹대인동물병원

서론: 단두종에서는 nasal fold에 의한 침모난생증과, 또 얇은 안와와 함께 거대 안검열 (macropalpebral fissure)로 인해 안구돌출 (exophthalmia)과 안검 내번 (entropion)이 동반되어 만성적이고, 재발성 (recurrent)의 결막 및 각막 질환을 보이며 이를 거대 안검열 증후군 (macropalpebral fissure syndrome)이라고 한다. 국내에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어 이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는 성견인 시츄견이 내원하였다. 안구검사에서 양측 눈 모두 침모난생과, 거대 안검열, 안검내번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오른쪽 눈 (OD)은 내원 당시 mild한 결막염과, 각막염을 보였고, 또, moderate한 각막 부종이 각막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 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만성적 유루증과 눈꼽으로 인해 안검열 주위가 항상 지지분하였다. 또 왼쪽 눈 (OS)에서는 만성적 각막염이 진행되어 각막 전반에 걸쳐 색소침착이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약간의 어두운 곳에서도 위협반사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sever한 결막염과 함께 만성적 유루증이 있었으며, 안검열 주위가 심하게 지지분하였다. 또한 각막에는 내측 각막윤부 (limbus)에 인접하여 육아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 눈물량은 오른쪽이 18mm, 왼쪽이 9mm로 왼쪽의 눈물량이 적은편이었고, 안압은 오른쪽이 15mmHg, 그리고 왼쪽이 25mmHg로 왼쪽 눈은 안압이 약간 상승되어 있었다. 생체극현미경을 통한 검사에서 양측 모두 각막의 두께가 정상보다 두꺼워져 있었고, 안구내의 수정체와, 홍채에는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양측 눈 모두에 Pocket technique (Roberts/Jensen)을 이용한 내안각 성형술을 실시하였고, 다음에 nasal fold를 제거 하고 난 뒤에, 안검내번을 보이는 곳에는 Hotz-Celsus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주었다.

결과: 항생제와 NSAID, 그리고 인공눈물을 내복과 함께 점안 치료한 결과 한달 뒤 환자는 결막염 및 각막염이 급격하게 사라졌고, 안구에서의 discharge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용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임상적인 의의: 이를 볼 때 단두종에서 만성 결막염과, 각막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nasal fold에 의한 침모난생과 거대 안검열, 그리고 안검 내번을 함께 검사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안각 성형술과, nasal fold resection, 그리고 안검내번 고정술을 같이 실시하면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꺼라 사료된다.

*Corresponding author: swieong@konkuk.ac.kr